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국제회의의 참가 종합보고서 요약
CCITT SG XI 회의

1992. 9. 21~10. 2 스위스 제네바

종합보고서(CT-92-06)의 목차

- CCITT SG XI 회의 참석개요
- CCITT SG XI 회의구성
- SG XI/1 : Interworking and Mobile
- SG XI/2 : Common Protocols
- SG XI/4 : New Techniques
- SG XI/6 : User-to-user Control
- 회의참석 소감
- 부록 4건

* 이 글은 일정기준이상의 국제회의의 참가단이 국제회의의 참석후 작성·배포토록 되어있는('92년부터 시행)국제회의의참가 종합보고서의 요약소개로서 이 지면을 활용해 널리 전파 보급코저 합니다.

** 종합보고서의 세부내용 또는 일부를 입수하고자 하실 분은 협회 사무국에 연락하실 바랍니다.

*** 종합보고서는 총 200부 발간되어 해당 연구위원회 및 관련 단체에 배포됩니다.

1. 회의개요

- 회의명 : CCITT Study Group XI Working Party Interim Meeting
- 회의기간 : 1992년 9월 21일 - 1992년 10월 2일
-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CCITT CICG (Genev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및 ITU빌딩
- 관련 letter No. : CCITT Collective letter N. 10/XI
- 회의참가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강태규, 주진천, 이경휴, 김석배, 김미성

2. 회의주요의제

1) 개회, 폐회등의 총회에서의 주요 의제

- 이번 CCITT Meeting은 Working Party Meeting이므로 개회, 폐회등의 총회는 없었음.
- 각 WP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적이 한번 있었음. 이 모임에서는 CCITT SG XI의 장인 Ryan의 은퇴식만 거행하였다.

2) WG별 주요 의제

- CCITT SGXI은 7개의 WP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참가단이 참석한 기간동안에는 WP/1, 2, 4, 6만 개최되었다. 각 WP별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 WPXI/1 : Interworking and mobile
- WPXI/2 : Common protocols
- WPXI/4 : New techniques
- WPXI/6 : User-to-user control

3. 회의주요결과

1) 개회, 폐회등의 총회에서의 주요 회의결과

2. 1)항 참조

2) WP별 주요 회의결과

- WP XI/1 : 지능망에 대한 UPT의 요구사항 작성
- WP XI/2 : 진보된 TCAP, SCCP, MTP, Q.SAAL 권고안 작성
- WP XI/4 : IN CS-1, IN CS-2의 전망, B-ISDN 신호방식 요구사항 release 1 완성
UPT 요구사항 INAP에 적용
- WP XI/6 : B-ISUP release 1 권고안 (BQ761-764) 완성

4. 차기회의일정

1)

- 회의명 : CCITT Plenary Assembly Meeting
- 회의기간 : 1993년 3월 1일 - 12일
- 회의장소 및 회의개최 기관명 : 헬싱키
- 회의주요안건 : · 제출된 권고안 승인
· Study Group 조직과 담당자 선임
· 제출된 Question들을 승인하고 각 Study Group에 할당
· 업무진행 방법 토의

2)

- 회의명 : 제 1회 CCITT Study Group XI Meeting
- 회의기간 : 1993년 5월 3일 - 19일
- 회의장소 및 회의개최 기관명 : 미정
- 회의주요안건 : · WP 조직결정, Question들 할당, 담당자 선임
· Study Group 활동
· Resolution No.2 승인

3)

- 회의명 : 제 2회 CCITT Study Group XI/WP Meeting
- 회의기간 : 1993년 11월 8일 - 26일
- 회의장소 및 회의개최 기관명 : 미정
- 회의주요안건 : · Study Group 활동
· Resolution No.2 승인

6. 회의참석소감

1) 업무관련 회의참석 소감

지능망연구부에서는 지능망에 관련된 망 구조 및 진화방향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및 통신망 프로토콜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SG XI/WP4에서 제시되는 연구결과는 현 업무수행에 특히 밀접하다. 차세대의 지능망에서 적용될 No.7 신호 프로토콜은 응용계층(layer 7)의 구조가 기존 TCAP/ASE의 형태보다 세분화되고 구조화되며 노드간의 접속 모형 및 정보 흐름등이 다양화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능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복잡, 다양화함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신호 프로토콜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번 회의에서 검토하였다. CCITT에서는 지능망의 발전단계를 CS-1부터 CS-n단계로 분류하는데 현재 권고되고 있는 기능 규격은 CS-1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들 권고안은 Q.1200계열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국내의 지능망 연구는 CCITT의 CS-1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CCITT에서 규정하는 지능망개념구조 및 기능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의 모형화에 대해서는 SIB(Service Independent Building Block)model이 좋은 tool로서 이용될 수 있으며 지능망 장치의 기능 요구사항으로서 지능망 FE(Functional Entity)의 기능모형이 활용가능하다. 전반적으로 CCITT SG XI에서 제시하는 제반 권고 및 No.7 규격은 지능망 서비스 시스템 연구개발과 관계가 매우 깊다.

UPT관련한 내용으로 그간 당 연구부에서 궁금하였던 몇가지 사항이 명확히 밝혀졌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습득하게 됨으로서 진행중인 연구 내용 및 국내 UPT 연구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 UPT의 권고 계획 여부
- UPT와 지능망과의 관계
- UPT번호계획과 기존 망간의 연동관계

CCITT SG XI WP 가을 회의에서 다루어진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 UPT 제공시 INAP 변경 요구
- TASC(Telecommunications Applications for Switchs and Computers)추가
- IN과 TMN관계

- AC(Application Context)이용이 성숙됨
- TC가 UNI, NNI모두 도입 적용
- B-ISUP, ISCP등으로 B-ISDN의 요구사항에 대한 작업이 활성화
- SG XI의장 Ryan은퇴
- 다음 회기 Question
- 다음 회의 일정 결정
- CCITT와 CCIR간의 상호 협력이 증가되었다.
- CCITT내의 각 SG간의 상호 협력이 증가되었다.

2. 업무외 회의참석소감

CCITT회의는 가입한 모든 나라의 통신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국에서 개발한 생산품(Product)을 가져와 CCITT권고안에 채택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통신 올림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난 업무외적인 소감은 다음과 같다.

- 회의장의 거대함, 충분한 시설과 빈틈없는 행정체계이다.
- 회의 방식은 의장이 있어 모든 발언권은 의장에게 얻어야 하며, 그 의장은 먼저 제안자에게 발표를 하게하고, 다음에 각 국의 대표자들에게 “Comment or Question?”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마 주제에서 멀어지는 이야기들을 피하고 심사숙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CCITT에서 채택되는 모든 기고서는 만장일치제이고 권고안, 또는 그의 수정안이 된다.
- 회의장에 사람들의 모습이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상당한 전문가임을 느꼈고, 나이가 한 40세 전후한 인상을 받았다. 더우기 발표되는 기고서는 자국에서 이미 개발을 하여 충분한 실험을 거친 것이거나, 이미 권고안이 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 일본의 대단함이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숨길 수 없는 것이지만 같은 아시아인으로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두렵기만 한 존재이기만 하다. 일본은 참가한 모든 사람이 한 가지씩 목적을 가지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회의에 임하기 전 많은 준비와 중간 중간에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 가는 모습들은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CCITT에 참가한 시기가 비슷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다른 회의는 어떤지 모

르지만 XI/WP4의 의장과 많은 소모임의 의장직을 맡아, 의욕적으로 많은 일에 관여하고 있음은 어떤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서로 각각 다른 회사에서 참석하지만은 전체를 총괄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KT와 같이 참석하였는데 인사만 했을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우리는 황 영조가 마라톤에서 일등을 했지만, 일본은 일본 전체가 우승 지점을 향해 달려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CCITT회의는 통신 기술분야에 있어 전쟁터이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전문가가 참석해야 되고, 많은 전문가를 배출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가지 회의를 참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최소한 전담반이 구성되어야 한다. CCITT회의는 연구 및 개발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육장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다. CCITT회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세계를 바라 볼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